



世宗特別自治市議會  
Sejong City Council

#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 운영 결과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世宗特別  
自治市議會  
Sejong City Council

= 20 1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운영 결과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 발 간 사

---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대표의원 김부유 입니다.

2014년 갑오년이 다가오고 있는 추운 2013년 12월의 끝자락에,  
201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온 보건복지정책연구회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결과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과 복지는 우리 국민 전체의 행복한 삶 그 자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결과보고서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복지 정책  
수립 및 다양한 학술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돕고 함께 참여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는 과거를 발판으로 성장하여 미래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비록 2013년은 곧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 안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위원들의 시간의 발자취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다양한 보건복지 현장에서 끊임없는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2013년을 닫고 거듭나 오는 2014년에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들을 대표하여  
성원해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23.

보건복지정책연구회 대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부 유

---



# Contents

I.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사업 계획 .....	1
1. 추진방향 .....	3
2. 사업개요 .....	3
3. 세부사업계획 .....	3
4. 기대효과 .....	4
II.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주요 활동 경과 .....	5
1. 연구회 주요 활동 일정 .....	7
III.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활동 내용 .....	9
1.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창립총회 .....	11
2.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제1차 토론회 .....	12
3.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우수기관 방문 .....	13
4.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제2차 회의 개최 .....	21
5.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제2차 토론회 .....	22
6. 보건복지정책 관련 토론회 참석 .....	23
7.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제3차 토론회 .....	24
IV.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연구결과 .....	25
V. 부록 : 토론회 참석 지정토론 내용 .....	49
VI. 언론 보도 자료 .....	89



# **I.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사업 계획**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2013년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사업 계획**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활성화를 위한 시청과 시교육청의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보건교육과 복지정책의 시정집중 활성화 전략 수립
-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복지행정과 보건교육행정의 상호협조 및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
- 회원 상호간의 여구 및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통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매칭 및 연구지원을 통한 연구모임 활성화 도모

## 1. 추진방향

-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한 시청과 시 교육청의 실태 파악
- 세종특별자치시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 제언 및 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보고서 발간을 통한 정보 공유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세종시청 복지분야 및 세종시 교육청의 보건교육 분야
- 사업기간 : 2013년 3월 ~ 2013년 11월(9개월)
- 사업내용
  - 세종시 복지행정(노인 및 청소년 등) 및 시 교육청 보건교육 실태분석 등 전문가 매칭 과제수행
  - 복지행정 및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현장방문 활동
  - 연구보고서 발간 · 배포
- 사업비 : 5,000천원

## 3. 세부사업계획

### [1] 연구 · 조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세종시 복지행정 및 보건교육 관련 전문가의 연구 및 모임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및 활동비 지원 (수시)
  - 연구회 구성 및 정기모임
- 사 업 비 : 1,000천원



## [2] 학교보건교육 실태 분석

- 사업개요 : 세종시 복지행정 및 시 교육청 보건·교육 실태 분석
- 사업내용 : 전문가 조사 및 분석 (조사비, 분석비)
- 사업비 : 1,000천원

## [3] 우수기관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참석

- 사업개요 : 복지행정 및 보건교육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내용 : 정기적인 현장방문 및 상호 토론회  
(현장방문 교통비, 식비, 토론회비 등)
- 사업비 : 2,000천원

## [4] 보고서 발간·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사업비 : 1,000천원

## 4. 사업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 2013. 1월중
- 연구회 발족식 및 1차 정기모임 개최 : 2013년 2 3월중
- 2차 정기모임 및 우수기관 현장방문 : '13. 9월 10월중
- 세종시 보건교육 실태 조사분석 : '13년 11월한
- 세종시 복지행정 관련 토론회 개최 : '13. 6월 '13년 11월한
- 보고서 발간 : '13년 11월한

## 5. 기대효과

- 보건교육 실시로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 복지행정과 보건교육행정의 유사성 및 상호관련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복지행정 추진
-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 및 공부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

## Ⅱ.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주요 활동 경과





## 1. 연구회 주요 활동 일정

구 분	일시	주제/활동	장소
1회	'13. 03.15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창립총회	세종시의회
2회	'13. 06.07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제1차 토론회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폭력예방 방안 및 존중과 배려의 청소년 문화를 위한 토론회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연구원 다목적실 (세종시 행정복지센터 1층)
3회	'13. 09.10	보건복지정책 우수기관 방문 및 간담회 (아산시 청소년문화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	아산시 일원
4회	'13. 10.17	보건복지정책연구회 2차 회의	세종시의회
5회	'13. 11.05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제2차 토론회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 개최계획	세종종합사회복지관 4층 강당 (세종시의회주관)
6회	'13. 11.29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참석	세종종합사회복지관 4층 강당 (세종시 주관)
7회	'13. 12.20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제3차 토론회 개최 － 청소년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천안시청 대회의실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주관)



### Ⅲ.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활동 내용





## 1.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창립총회

### □ 일시 및 장소

- 2013. 3.1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 참석자

- 연구회 소속 시의원 3명, 공무원 4명, 민간위원 2명, 기타관계자 2명 / 11명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대 표	김 부 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 사	김 종 립	사단법인 보건교육 포럼 이사
회 원	김 학 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장 승 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회 원	박 연 숙	공주대학교 교수 충남간호사협회회장
회 원	이 길 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
회 원	강 희 동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과장
관 계 자	신 정 교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복지전문위원
실 무 자	이 선 희	세종특별자치시건강정책담당

### □ 활동 내용

- 연구모임 설립 배경 설명
- 연구회 위원 소개, 향후 활동 방향 및 일정 논의

### □ 연구모임 1차 사진





## 2.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제1차 토론회 개최

### 청소년 폭력예방 방안 및 존중과 배려의 청소년 문화를 위한 토론회

####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6.7.(금), 14:00~16:00
- 장 소 :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연구원 다목적실
- 주 제 : 존중과 배려하는 비폭력 청소년 문화만들기
-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승업)
- 참가인원 : 7명 / 좌장 1, 주제발표자1, 토론자 5
- 토 론 자 : 5명 ( 김학현 의원 및 이길주 장학관 , 관련전문가 3)

#### □ 토론 주요내용

- 주제발표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김대유 교수/ 경기대학교 교직학과)
  - 학교, 교사, 학부모의 역할, 학교폭력 바로알기 및 극복방안
- 토 론 자
  - 학교폭력의 원인과 정책과제 (김준환 교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 등
  - 일진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심은석 서장/ 세종경찰서)
    - 일진회 및 일진문화의 실상, 일진문제 해결 매뉴얼 등
  - 존중과 배려의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 이길주 장학관/ 보건복지정책연구회 회원)
    - 청소년 폭력예방과 존중과 배려의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중심의 정책 및 사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김학현 의원/ 보건복지정책연구회 회원)
    - 청소년 폭력발생원인, 환경적 실태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방안
  -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 김영미 의원/ 서울시교육청 폭력대책위원회)
    - 놀이문화부족, 서열화된 교육제도, 협력이 아닌 무한경쟁 등 학교폭력 원인분석



### 3.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우수기관 견학

#### □ 견학 개요

- 일 시 : 2013. 09.10.(화), 10:00~16:00
- 장 소 : 아산시 일원
- 모임형태 : 기관 방문 및 간담회
- 주 제 : 아산시 청소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정책 우수사례 청취 및 질의응답
- 방문기관 :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및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 □ 견학 내용

##### ○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 - 일반 및 시설 현황

위 치	아산시 권곡동 448번지 일원
면 적	대지면적 71,952㎡
사 업 비	232억원 (국비35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96억원)
개 관 일	2010년 06월 15일 (2008. 11월 착공)
시 설 현 황	1층(중국문화체험관, 창작공방, 특기개발실, 비전공작소) 2층(방과후 교실, 진로상담실, 세미나실, 유스카페) 실외 및 부대시설 : 스마트체육관, 천문대, 야외공연장, 꼬리명주나무체험관

###### - 조직 및 인력관리 현황

운 영 위 원 회 청 소 년 운 영 위 원 회		관 장 김 민	학 교 협 력 관 황 대 연	
		부 관 장 배 정 수		

기 획 운 영 팀		청 소 년 활 동 팀		특 성 화 사 업 팀		교 육 문 화 팀	
팀 장	임종찬	팀 장	송효인	팀 장	한주상	팀 장	지명근
회 계	박지연	운 영 위 원 회	곽영록	영 상 미 디 어	함영인	교 육 문 화	김신연
행 정	이은희	동 아 리	김정훈	천 문 담 당	김진기	창 의 적 체 험 활 동	김두민
시 설	이창규	프 로 그 램	장유선	자 원 봉 사	방은정	생 활 체 육	한원철
	이현성					방 과 후 PM	황지현
	신동석					방 과 후 SM	김성예
안 내	이은숙					방 과 후 SM	서은진
경 비 / 환 경	조돈홍						
미 화 / 식 당	4						
매 점	최현주						
버 스	권중호						
버 스	권희두						

- 이용인원

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439,988명	44,905명	200,697	193,386명	○

- 충청남도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주요프로그램

- 청소년 활동사업 : 청소년 동아리사업,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주말문화체험등

분 야	구 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자치분야	청소년동아리	연중	청소년 동아리 지원
문화체험활동분야	청소년의 달	5월	청소년축제 등
	주말문화체험	연중/매 주말	영화상영, 공연
	체험학습	월 1 회	찾아가는 체험학습
	캠프	방학 중	가족캠프청소년캠프
학교연계사업분야	학교연계	연중수능 후	학교축제지원 수험생 위로 공연 등
지역연계사업분야	지역연계	연중	지도자 네트워크 실습교육 등

- 특성화 사업 : 청소년재능나눔 봉사단잇쥬, 비전스쿨, 청소년지역사회캠페인 등

분야	구 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자원봉사	연중	재능나눔 봉사단 지역사회변화캠페인
영상 및 직업체험	청소년기자단	연중	취재, 소식지 발간
	미디어교육	연중	영상 교육 등
	직업체험	연중	진로멘토100인위원회제빵, 바리스타
국제문화탐방	중국문화탐방	여름방학 중	테마가 있는 문화탐방
	산해관 운영	연중	중국문화체험관
성취포상제	성취포상제	연중	성취포상제 지원
	자기도전포상제	연중	자기도전포상제
기초과학	천문대운영	연중	관측회/캠프 등

### Ⅲ.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활동 내용

- 교육문화사업 : 50여개 교육문화스포츠프로그램, 장애인프로그램, 강사직무연수 등

분 야	구 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교육강좌	교육문화스포츠강좌	연중	강좌운영
창의적체험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연중	창의적체험활동지원
문화예술단	청소년문화예술단	연중	오케스트라/합창단
장애청소년	장애청소년프로그램	연중	체육, 드럼, 난타 등
교육연수	학부모 교육	연중	자녀교육 특강
	강사직무연수	분기 1회	역량강화/안전교육 등
생활체육	청소년스포츠단	매주 토	토요 스포츠 활동지원
특별 프로그램	전시 및 발표회	연말	프로그램결과 발표회
	디자인스쿨	연중	어린이 창의력 개발

#### - 2010년 이후 주요 공모사업 실적

- 2010. 07.07 : 창의적체험활동 시범기관 선정
- 2011.02.01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시설 배치지도사 운영기관 선정
- 2011. 03.14 : 청소년멘토링사업선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1. 06.14 : 국제청소년포상제 우영기관 선정
- 2012. 02. 02 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기관 선정
- 2012. 03. 23 국가보훈처 공모사업 겨레얼 지킴이, 보훈캠프 사업 선정 운영
- 2012. 04. 23 자기도전성취포상제 운영기관 선정
- 2012. 05. 08 2012 충남상설진로캠프 운영기관
- 2012. 06. 13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선정  
(나도 바리스타, 어린이창의디자인프로그램, 비전을 향한 날개짓)
- 2012. 04. 20 아산시청소년문화존 운영기관 선정
- 2013. 01. 10 2013 청소년체험활동 시범 운영기관 선정
- 2013. 02. 28 충남 청소년 대표 문화존 운영기관 선정
- 2013. 04. 09 충청남도 상설진로캠프 운영기관 선정
- 2013. 05. 0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선정(우리마을 토요체험)

- 2010년 이후 수상실적

일 시	내 용	발급기관
2011. 11. 19	제13회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대상	여성가족부
2011. 11. 22	제3회 대한민국 휴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보건복지부
2012. 04. 13 ~ 20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한국대표 선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09. 11	제14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금상	푸르덴셜
2012. 11. 18	2012 충청남도청소년참여대회 최우수상	충남청소년활동진흥원
2013. 02. 19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여성가족부장관상	여성가족부

-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운영법인의 안정적 지원
- 지역 유일의 청소년수련시설
- 경험이 풍부한 인적 구성
- 쾌적한 환경과 입지조건
- 교육지원청및 학교와 협력관계
- 학교협력관 배치 및 활용
- 대학의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 안정적인 재원 확보

약점(Weakness)

- 지역사회 인지도 미약
- 타 도시에 비해 적은 청소년 인구
- 직원 업무 부담 증가
- 접근성 부족과 이동수단의 불편함
-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따른 실내 공간의 부족
-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만들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인프라 부족
- 직원들의 지역사회 연관성 부족

기회(Opportunity)

- 지속적인 인구유입
-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협조체계
- 입학사정관제, 창의적체험활동의 도입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 도시 숲 조성으로 내방인구 증가
- 주 5일 수업제의 시행
- 후원이 가능한 기업 다수 존재

위협(Threat)

- 원거리 청소년 및 학교의 이용불편
- 학교 자체 활동 강화
-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교육지원청등 지역 기관 프로그램과의 경쟁
-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전문 인적자원의 부족
- 사교육 시장의 팽창
- 스펙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활동 참여
- 청소년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

○ 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일반 및 시설 현황

위 치	아산시 변영로 206번길 42
면 적	대지면적: 493m(149.13평), 건축면적: 171.89m(51평), 연면적: 331.54m(100평)
개 관 일	2004년 09월 04일
시 설 현 황	1층(사무실/ 관장실,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자료실) 2층(컴퓨터/ 침실 3실, 프로그램실, 거실, 주방)

- 조직 및 인력관리 현황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전문상담원	계
	1	7	8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시설 푸른쉼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계
	1	3	4



- 클라이언트 대상지역 : 충남 전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상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사례 및 일반사례의 전문상담 실시 및 서비스지원</li> <li>- 현장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사례판정 도모 및 신속한 개입</li> <li>-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한 재 학대 발생예방</li> <li>- 이동 상담을 통한 잠재된 사례 발굴</li> </ul>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지역 내 노인 체험 및 사진전 실시</li> <li>- 자체특별기획행사 및 지역사회 축제 참여</li> <li>- 홍보물품, 소식지,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한 홍보</li> </ul>
조사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개입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매뉴얼 발간</li> <li>- 사업관련 세미나 및 전문적인 외부교육 실시</li> </ul>
예방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일반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등)</li> </ul>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및 홍보행사를 통해 후원자 모집 및 관리</li> <li>- 자원봉사 모집 및 관리</li> <li>- 지역사회 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협력체계 구축</li> </ul>
직원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초빙 강의를 통한 업무 능력 향상</li> <li>- 사업관련 교육 및 워크샵 활성화</li> </ul>
노인시설입소자 상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생활시설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학대상담 사례개입</li> <li>- 잠재적 학대사례에 대한 조기개입</li> </ul>
학대피해 어르신 일시보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 어르신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보호 강화</li> <li>-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지원</li> </ul>

-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요업무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업무  
(노인학대 예방교육, 홍보사업, 협력체계 구축, 노인인권보호사업,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응급상황의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 2013년도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예산	세 입		세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2013년도 예산	정부보조금	514,419천원	사업비	223,716천원
	법인보조금	50,000천원	사무비	인건비 280,033천원
	후 원 금	10,000천원		운영비 39,760천원
	사업수입금	0원	재산조성비	30,910천원
	기타 지원금	1,000천원	기 타	1,000천원
	총 계	575,419천원	총 계	575,419천원
2013년도 지원금 내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지 원 기 관	지 원 금 액	
		중앙정부	244,191천원	운영비, 피해노인쉼터사업
		충청남도	250,828천원	운영비 및 사업비 노인시설학대실태조사사업
		아산시	19,400천원	노인일자리사업
	기타 지원금 내역	지 원 기 관	지 원 금 액	지 원 내 역
			천원	

- 세종시 사례개입 현황

구 분	2013년	2012년	비 고
상 담	시설학대 5건 개별사례 6건 11건 109회	9건 141회	
교 육	13개 노인복지시설	1회 25명	
쉼터입소	1명	2명	



□ 4차 모임 사진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 4. 보건복지정책연구회 2차 회의

### □ 일시 및 장소

- 2013. 10.17,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 참석자

- 연구회 소속 시의원 3명, 공무원 6명, 기타위원 4명, 기타 관련단체 2명 15명

### □ 활동 내용

- 연구모임 추진실적
  - 김학현·이길주회원 : 「청소년 폭력예방 방안 및 존중과 배려의 청소년 문화를 위한 토론회」
  - 우수기관 방문 및 견학 활동
- 향후 추진계획 논의
  -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 개최 및 관련 토론 참가 : 11월중  
( 장승업, 강희동 회원 참여)
  - 건강형평성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습관 실천운동 : 12월중  
(김종립 · 박연숙연구회 회원)
  - 청소년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2월중

### □ 연구모임 2차 사진



## 5.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제2차 토론회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

####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11.5.(화), 10:00~12:00
- 장 소 : 세종시종합사회복지관 4층
- 주 제 : 이용자 중심의 수련관 모델 사례발표
-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주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김부유
- 토 론 자 : 5명 ( 김부유 의원 및 강희동 사회복지과장 , 관련전문가 3)

#### □ 토론 주요내용

- 기조강연 : 세종특별자치시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청소년 수련시설 모델
  - 청소년 시설 개념, 유형별 현황, 운영기준, 한계점 등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황미영)
- 사례발표 : 이용자 중심의 모델 소개 ( 박현석/ KT&G 상상마당 논산 운영자 대표)
  - 논산 주요사업, 교유협력, 시설현황 등 ( KT&G 상상마당 논산을 중심으로)
- 토 론 자
  - 세종시청소년 수련관에 바란다. (류다예·홍서형 세종시 청소년 참여의원)
    -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 및 공간 등
  -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
    - 청소년 수련관 설립목적등 ( 박현석/ KT&G 상상마당 논산 운영자 대표)
  -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 ( 박진만/ 건축사사무소 테마 소장)
    - 건립방향, 건립개요, 설계공모방식, 설계방향, 사업비 분석, 대안 등
  - 세종특별자치시의 첫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제시방향 ( 김부유 세종시 의원/ 보건복지정책연구회 대표)
    - 수련관부지, 설계, 청소년관련 단체와의 통합성, 약자배려한 설계등 의견제시
  -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 ( 강희동 세종시 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정책연구회 회원)
    - 설립개요, 기능적 특성, 추진방향 등





## 6. 청소년 정책 지역토론회 참석

###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11.29.(금), 14:00~16:00
- 장 소 : 세종시종합사회복지관 4층
- 주 제 :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 방안
-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
- 토 론 자 : 5명 ( 장승업 의원 및 관련전문가 4)

### □ 토론 주요내용

- 주제발표1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 김기현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제5차 기본계획 특징 및 정책과제 등
- 주제발표2 : 청소년 활동공간 이런 것을 바랍니다.( 박철웅 교수/ 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
  - 미래도시의 비전과 청소년정책 인프라의 연계원칙, 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 모범적 구축 등
- 토 론 자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 (류철식/ 다일사회복지연구소 소장)
    -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 및 세종시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의 현실 등
  - 청소년 선도활동 중심의 정책 제언 ( 장승업 세종시 의원/ 보건복지정책연구회 회원)
    - 문제청소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등
  - 청소년 보호중심의 정책 제언 (장백기 /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소장)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도별 시행계획, 세종시 활동 등



## 7. 청소년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12.20.(금), 14:00~15:30
- 장 소 : 세종시종합사회복지관 4층
- 주 제 : 청소년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토론회
-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 토 론 자 : 5명 ( 김부유 의원 및 관련전문가 4)

### □ 토론 주요내용

- 주제발표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방안
  - 청소년에 대한 이해, 청소년 건강과 인터넷 중독 등 (류권옥/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 토 론 자
  - 청소년이 바라보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류다예/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원)
    - 여가 및 문화공간 부족, 인정욕구 및 성취동기의 부족 등
  - 청소년 정신건강 ( 김종립 보건교사/ 보건복지정책연구회 회원)
    -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실태 등
  - 청소년 보호차원의 미디어 중독 대응방안 (이순민 상담원 /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미디어메트릭스사회, 인터넷게임 고위험자 증가, 청소년 전문기관의 역할 등



## Ⅳ.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연구결과





## 건강형평성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습관 실천운동

공주여자고등학교 김종림

### I. 보건교육의 필요성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년 약 8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31개 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건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흡연율과 성관계 경험률에서 중3과 고1 사이의 기간이 가지는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건강위험행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중3에서 고1 사이임을 알 수가 있었다.<sup>1)</sup>

WHO는 보건교육을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에 유익을 주는 삶의 기술을 발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강정보활용능력(health literacy)을 개선하도록 고안된 의사소통과 연관된, 의식적으로 구조화된 학습 기회라고 하였다. 보건교육을 건강 관련 정보의 측면에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의료 제도를 이용하고, 개인적인 건강 위험 행동과 위험 요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과 관련한 정보의 소통,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때 필요한 동기, 기술, 자기 효능감을 고양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건교육은 단순한 개인적 건강 행동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건강 결정 요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에 대한 조직적인 가능성, 노력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최근 기사에서 따르면,

“핀란드도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던 1965년부터 1990년까지 25년 동안 자살 사망률이 3배나 늘어나 10만 명당 자살률이 30명을 넘어섰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핀란드는 치솟는 자살률로 국가적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1986년 세계 최초로 국가가 주도하는 거국적인 ‘자살예방프로젝트’를 단행했다. ‘핀란드 경쟁력 100’이라는 책을 보니 ‘자살 예방 국가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라는 범국가적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했다. 자살 예방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여러 해 동안 핀란드에서 발생한 모든 자살사건을 철저히 조사 연구했다. 중략. 핀란드는 1996년 10만 명당 자살률이 30.3명에서 2004년 20.4명, 2008년에는 16.7명으로 감소하면서 자살률이 세계 2위에서 13위로 낮아졌다. 8-27 09:24 | CBS 권영철 선임기자)”

핀란드의 노력 중에 괄목할 만한 정책은 [보건교과를 필수]로 도입하여,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책무성과 역량을 기르도록 가르치고, 자신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삶의 기술로 보건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왕따, 학업 스트레스, 우울, 자살 등 건강문제는 모두 학교와 가

1) 보건교육·건강증진의 체계적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토론회(2012), 조병희 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p13

2) health education : theoretical concepts, effective strategies and core competencies( )



정, 사회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병리적 현상인데, 그 삶의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적인 방법을 외면한 채, 범죄자 색출하듯 검사하고 격리해서 치료와 상담을 하고, 낙인찍을 때 건강문제의 발생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세종시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 발병하였던 결핵과 같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된 몇 명을 치료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결핵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 제도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추후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그 학생의 고통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상호간의 문제로 공감하고 함께 개선해보고자 노력할 때,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강문제와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과 우울 등의 문제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건교육은 건강증진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건강 네트워크에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환경을 평가하고 변화시키는 등 글로벌 인재로서 학생 개인 및 집단의 건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세계를 품고자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II. 보건교육의 법률적 근거 및 교육부 정책

### 1. 법률적 근거와 교육부 정책

개정된 학교보건법 <표-1>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학교교육계획 반영 내실화 관련 교과부 주요 교육정책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5547(2012.12.24)]과 [2013 학교보건기본방향,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229(2013.1.09)]와 같은 공문을 <표-2>와 같이 전국 각 시도교육청으로 보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시행하도록 한 바 있었다.

#### <표-1> 학교보건법 중 보건교육 관련 법률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과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 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 15조 제2항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모든 학교에 제9조의 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표-2> 교과부 공문 주요내용

## 29

##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학생건강안전과, ☎2100-6544)

### 주요내용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을 통한 학교보건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 □ (교육부) 추진계획 및 내용

-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
  - 학교 성교육 의무교육 시수 및 대상 확대, 보건교육 부실운영 방지 등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

#### □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반영내용)**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교사연수 등 전문성 제고방안 수립·추진
  -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지속적인 성교육 등 보건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형 보건교육 프로그램 연계·체계화방안, 교재(교구) 지원, 보건(교육)실 현대화,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 교사 연수과정 개설·운영 등

####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 포함·추진('13.5.27)

- **(반영대상)**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 **(반영시기)** 매년 다음 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반영, 지속적인 학교 컨설팅·지원
- **(유의사항)**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 교수법 등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
- **(재원여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 교재(교구)지원, 보건실 및 보건교육실 현대화, 보건교사 수업 중 응급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대체 인력비, 교사 연수비 등

#### □ (단위학교) 학교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반영내용)**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시수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 수립
  - 교육시수 및 방법, 교재(교구)지원,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 세부추진계획
- **(반영시기)** 매년 다음 학년도 학교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의사항)** 형식적·분절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고,
  -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성교육 등 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추진
- **(재원여부)** 학교운영비

## □ 세부 추진일정

사업명	세부추진사항	추진시기	비고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 (교육부) 기본방향 수립·시달	2014년 1월	
	- (교육청) 시·도교육청 계획 수립·추진	2014년 2월~	
	- (교육청) 단위학교 계획 통보	2014년 2월	
	- (단위학교) 학교운영계획 수립·추진	2014년 3월~	

## 참고

##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과정운영 주요사항

구 분	주 요 사 항
교육청	<p>1. 시·도교육청 보건교육(성교육)과정 편성지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지침 중 보건교육(성교육)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li> <li>-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과 '장학자료'를 작성하여 학교보건교육(성교육)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관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li> </ul> <p>※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장학지도계획 수립·시행관련 자료 등 참고</p>
	<p>2. 보건교육(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행·재정적인 지원현황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 보급,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을 위한 예산편성·지원현황은?</li> </ul>
학교	<p>3. 학교보건교육(성교육)과정 편성·운영현황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과정에 연간보건교육(성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li> <li>- 계획내용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li> <li>-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해 교과서를 보급·활용하고 있는가?</li> <li>- 누가 보건교육을 담당하나?</li> <li>- 학교보건교육(성교육) 실시현황(시수, 담당교사 등)이 정확하게 neis 교무업무시스템에 등록·관리되고 있는가?</li> <li>- 보건교사 수업 중 적절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li> </ul> <p>&lt;참고자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건강의 이해, 질병예방과 관리, 성교육, 약물오남용 예방, 정신건강, 생명존중 교육, 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등</li> <li>- (교육시수) 중등학교 선택과목 채택·운영, 선택과목으로 운영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학년을 대상으로 연간17차시 기준의 정기적인 보건교육 시간 운영</li> </ul>

## 32 심폐소생술(CPR) 교육 추진

(학생건강안전과, ☎ 2100-6547)

### 주요

### 내용

- 학교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 □ (교육부) 추진계획 및 내용

- 학교의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추진

#### □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반영내용)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적 실시를 위한 **각급 학교 지원 및 교육실태 관리방안 마련**
- (반영대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 (반영시기) 당해 연도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시**
- (유의사항)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별도의 연수계획 수립·추진**
- (재원여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 □ (단위학교) 학교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반영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실시를 위한 **교육대상·방법·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반영대상) 모든 초·중·고등학교 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반영시기) 매년 2월,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은 **별도 계획을 수립·추진**
- (유의사항)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함께 실시하도록 추진하며, 단순 지식전달 방식의 교육 지양
  - 필요시 외부강사를 활용하되 **자체강사 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적 교육 수요에 대응
- (재원여부) 강사 섭외, 교재 마련 등을 위해 필요시 **학교운영비** 활용

#### □ 세부 추진일정

사업명	세부추진사항	추진시기	비고
심폐소생술(CPR) 교육	(교육부)기본계획 수립·시달	2014년 1월 초	
	(교육청)교육청 기본계획 수립·통보	2014년 1월 말	
	(교육청)단위 학교지원 계획 추진	2014년 3월~	
	(교육청)교직원 연수계획 계획 추진	2014년 3월~	
	(단위학교)학교 교육계획 수립·추진	2014년 2월~	

## 33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생건강안전과 ☎ 2100-6547)

### 주요내용

-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생 대상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 [교육부] 추진계획 및 내용

- 학교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기본방향 수립
  - 흡연·음주 등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 **학생 흡연·음주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감

#### □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반영내용) 학교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각급 학교 지원 및 교육실태 관리방안**
- (반영대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 (반영시기) 당해 연도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시**
- (유의사항)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지원·관리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
- (재원여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 □ [단위학교] 학교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반영내용)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실시를 위한 **방법·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경우 자체 또는 외부 교육강사 확보방안 강구
  - 흡연·음주 예방교육 외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병행
- (반영대상) 모든 초·중·고등학교
- (반영시기) 매년 2월,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추진
- (유의사항) 모든 학생이 연 1회 이상(초등학교의 경우 연 2회 이상)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일방적인 지식전달 방식의 교육 지양
- (재원여부) 강사 섭외, 교재 마련 등을 위해 필요시 **학교운영비** 활용

#### □ 세부 추진일정

사업명	세부추진사항	추진시기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교육부)기본방향 수립·시달	2014년 1월 초
	(교육청)교육청 기본계획 수립·통보	2014년 1월 말
	(교육청)단위 학교지원 계획 추진	2014년 3월~
	(단위 학교)학교 교육계획 수립·추진	2014년 2월~

### Ⅲ.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교육 현황

교육부 공문과 국가수준보건교육과정 고시를 근거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공지하였고, 각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 및 보건교육 현황은 <표-3>과 다음과 같았다.

#### 가. 보건교사 배치와 보건교육

세종시는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전문가인 보건교사 배치율이 55%로 서울특별시 99.7%, 인천광역시 87.7%, 대전광역시 76.1%에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기타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보건교육실 설치와 보조인력 배치 또한 미비하였다.

<표-3> 보건교사 배치 및 보건교육 현황

학교급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 학교 수(%)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학교 수(%)	보건 보조인력 배치 학교 수	보건교육실 설치 학교 수
초	23	13(56.5)	13(100)	1	4
중	10	3(30)	2(66)	0	0
고	7	6(85.7)	4(66.6)	0	1
합계	40	22(55)	19(86)	1	5

<표-4> 전국 보건교사 배치 및 보건교육 실시 현황

지역	보건교사 배치 및 보건교육 실시 현황		
	2013년		
	보건교사 배치율	전체학교 대비 보건교 육 실시율	보건교사 배치교 대비 보건교육 실시율
서울	99.7%	60.8%	60.9%
인천	87.7%	18.8%	21.4%
부산	97.9%	20.5%	20.9%
대구	86.1%	19.9%	23.1%
광주	99.0%	28.6%	28.9%
대전	76.1%	44.0%	57.8%

울산	69.8%	25.0%	35.8%
세종	55%	65%	86%
경기	89.8%	31.7%	35.2%
강원	49.3%	35.3%	71.7%
충북	58.2%	41.8%	71.8%
충남	51.4%	36.7%	71.3%
전북	59.8%	40.2%	67.2%
전남	53.1%	47.0%	88.4%
경북	61.6%	41.0%	66.6%
경남	54.2%	27.0%	49.9%
제주	48.4%	27.7%	57.3%
전체	74.1%	36.4%	49.1%

출처: 2013 국회 도종환의원 국감 자료(교육부 작성)

#### 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실’과 교육을 위한 ‘보건교육실’이 인접해서 설치되어야 하는데, 신설된 학교마저도 보건실만 있어 보건교육 시간에 보건실을 비우게 되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고, 각종 교육자료를 교실로 옮겨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 한명만 배치되어 보건실에 밀려드는 환자와 수업시간에 맞춰 뛰어들어야 하는 고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 다. 보건교육자료

보건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을 기르고, 실생활에 활동하기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자료가 필요하나 기초적인 보건교과서부터 심폐소생술 교구까지 구비되지 않은 학교가 많았다.

구 분	교육자료명	교육자료 구비 학교수(%)	비고
주교재	보건교과서	15(37.5)	필수교재
건강관리	손씻기 교육용 인조세균 실험도구	11(27.5)	감염병예방교육
약물오·남용	음주체험 고글	9(22.5)	음주예방교육
	흡연실습 모형	12(30)	흡연예방교육
	흡연으로 인한 인체질병모형	8(20)	흡연예방교육과 인체관련 교육
성과 건강	임신 출산 모형	9(22.5)	성교육
	피임실습 도구	6(15)	성교육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애니인형	18(45)	응급처치교육
	자동제세동기	3(7.5)	응급처치교육
	하임리히법 교육 인형(성인용)	9(22.5)	응급처치교육
	하임리히법 교육 인형(영아)	2(5)	응급처치교육

### Ⅲ. 세종특별자치시 보건교육 정책 방향

#### 가. 보건교육의 효과 및 정책 방향

- 학교 보건 정책을 보건교육 중심으로 추진하고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3대 건강권(건강에 대해 알 권리, 건강 서비스를 받을 권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중심의 학교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나. 정책 제안

##### I. 건강에 대해 알 권리 실현

1.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 보건교육과정 필수 운영
  - 가. 초·중·고 급별 최소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과정 의무 운영
  - 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 규정에 따라 보건교과서 무상 지급
2. 모든 학교 보건교사 및 보건 보조교사 의무 배치, 거대학교 2인 배치
3. 보건실 옆 보건교육실 설치로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 동시 시행 가능

##### II. 건강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학생 건강 검사 국민 건강검진으로 통합·일원화
  - 가. 급별 학생 건강검사 → 입학 전 건강검사로 변환
  - 나. 학생 건강 검사, 국민 건강 검진으로 통합
2. 학교 안전 공제회 서비스 간소화
  - 사고 발생 통지는 학교가, 급여 청구 및 지급은 학부모와 공제회간 직접 연계

##### III.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실내공기질 관리 등 환경 시설 관리, 지자체와 연계·통합
  - 지자체-학교 연계로 실효성 있는 학교 환경 위생(시설)관리 추진
2. 보건실 현대화 및 학생 휴식 공간 설치

##### IV. 건강한 학교,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한 대한민국

1. 학교 보건교육 전담 부서 설치로, 보건교육·건강증진 정책의 전문성 제고



시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 부서 설치, 전문 인력 확대

## **2. 건강한 성장,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는 건강 학교 운영**

-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학교 문화 조성
- 건강을 지향하는 교장, 교사 배치, 학부모-전문가 연계하는 학교보건위원회 설치

## **3. 보건교육 센터 설치**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교육·건강증진 정책 수립, 건강형평성을 추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실천사례

공주여자고등학교 보건교사 김종립

### I. 사업의 목적

공주여자고등학교는 24학급, 학생 805명, 교직원 65명으로 2011년 3월부터 학교 구성원의 건강증진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진로동아리 및 4분의 기적 동아리가 구성되었고, 열띤 토론을 통해 건강습관 실천운동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매일 아침 등교시간 홍보활동 및 각 반 또래교육을 시작하였다.

첫째, 개인 컵을 가지고 하루 1.5L 정도의 물을 마시자.

둘째,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감염병을 예방하자.

셋째,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을 익히자.

넷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여성의 건강을 지키자.

다섯째,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생리통은 진통제보다 찜질팩과 아로마테라피 등 자연요법으로 조절하자.

### II. 사업대상 및 기간

1. 사업대상 : 공주여자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2. 기간 : 2011. 03. 02 - 현재

### III. 내용 및 수행방법

1. 개인 컵을 가지고 하루 1.5L의 물을 마시자.

#### 가. 물마시기 운동의 필요성

인체는 75%의 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오늘 날, 음용수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중요해지고, 물이 부족할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sup>3)</sup>

탈수량은 체중당 %	증상
0	없음
1	갈증
2	갈증 심화, 식욕부진, 불편
3	초조, 혈액량 감소
4	메스꺼움, 생리활동 저하
5	무기력한 표정, 사지 통증
6	체온과 맥박 증가
7	두통, 지능장애
8	혼미, 호흡 곤란
9	허약, 정신 혼란
10	근육 이완, 헛소리
11	혈액량 감소, 신장손상

3) 물은 약인가 독인가?(2008), 리푸생, 김종일 번역, 눈과 마음 출판사.

성인이 되면서 인체 내 세포수가 감소하고, 체내 지방 함량이 증가하며,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져 탈수가 심화된다. 탈수는 만병의 근원으로 특히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된다. 공주여자 고등학생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식사시간 이외에 마시는 물의 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0cc 이하를 섭취하는 학생들이 95%, 500-1000cc 이하를 섭취하는 학생들이 4%, 1000cc 이상을 섭취하는 학생들이 1% 정도로 나타났다. 이들 중 500% 이하를 섭취하는 학생들이 1000cc 이상을 섭취하는 학생들보다 각종 호흡기 및 소화기 질병을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4분의 기적 동아리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 나. 물 마시는 방법 교육하기

- 1) 개인 컵 가지고 다니기
- 2) 하루 1.5L 정도를 조금씩 자주 마시기
- 3) 식사 전 30분, 식후 1시간은 소화를 위해 마시지 않기
- 4)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물 마시기
- 5) 탈수를 유발하는 음료 절제하기(카페인, 탄산, 농축음료 등)
- 6) 가족 및 친구들에게 물마시기 권하고 함께 마시기

#### 다. 물 마시기 건강캠페인 활동

- 1) 2012년 3월 26일~4월 13일(3주), 2013. 3월 11일 ~ 3월 29일(3주), 07시 45분 ~ 08시 05분(20분) 교문 앞에서 등굣길 물마시기 캠페인 하기
- 2) 보건진로동아리 및 4분의 기적 동아리 학생들이 각 반에서 물 마시기의 필요성과 마시는 방법에 대해 교육 및 홍보하기
- 3) 보건수업을 통해 물 마시기의 필요성과 깨끗한 물, 위생적인 컵 관리에 대해 교육하기
- 4) 개인 컵과 물통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학급 시상하기
- 5)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하기



(홍보물 제작)



(개인 물 컵 가지고 다니기 1등 2-2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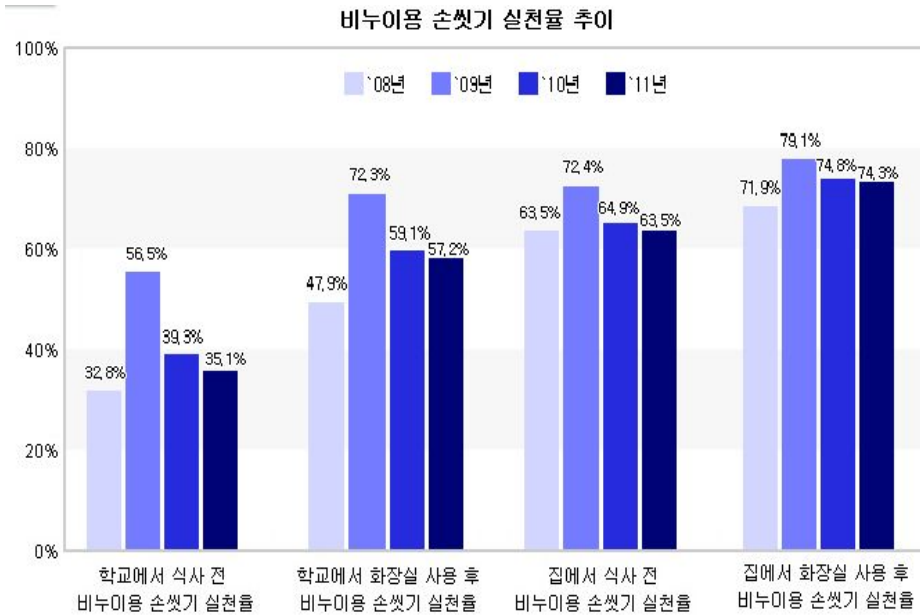
(등굣길 홍보하기)

## 2.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감염병을 예방하자.

### 가. 손 씻기 교육의 필요성

세균, 바이러스의 집합소인 손은 여러 가지 질병의 감염 경로가 되고, 손에 묻은 세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1마리의 세균이 3시간 후에는 26만 마리 정도가 된다. 손만 자주 씻어도 전염성 질환의 60-7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sup>4)</sup> 2011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비누이용 손 씻기 실천율(%)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위험과 범국민적인 손 씻기에 관한 홍보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을 위하여 비누로 손씻기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4) 함께하는 보건(2010), 경기도 교육감 인정. p31



#### 나. 손 씻기 방법 교육하기

##### 1) 보건수업을 통해 인조세균을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교육하기



(인조세균으로 손 씻기 교육)

#### 다. 손 씻기 건강캠페인 활동

- 1) 2012년 3월 26일~4월 13일(3주), 2013. 3월 11일 ~ 3월 29일(3주), 07시 45분 ~ 08시 05분(20분) 교문 앞에서 등굣길 손 씻기 캠페인 하기
- 2) 보건진로동아리 및 4분의 기적 동아리 학생들이 각 반에서 비누로 손 씻기 홍보하기





### 3.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을 익히자.

#### 가.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뇌는 4분이 경과하면서 급격히 손상이 되고 생존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응급 의료 기관에 구조 요청을 한 뒤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이 반드시 필요하다.<sup>5)</sup>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로 우리 주변에서 종종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소생불가능 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익혀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작하였다.

#### 나. 심폐소생술 방법 교육하기

- 1) 1차, 보건진료동아리 및 4분의 기적 동아리 학생들 교육(2011, 2012, 2013년 5월)
- 2) 2차, 동아리 학생들이 각 반에서 또래교육(2011, 2012, 2013년 6월)
- 3) 3차, 보건교과를 통한 학급별 보건교육 및 교육자료 구비

교육자료명	수	비 고
성인 애니인형	6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인형
영아 애니인형	1	기도폐쇄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인형
자동제세동기	1	
기도폐쇄 인형	2	하임리히법 교육을 위한 인형

- 4) 의식확인-119구조 및 AED 요청-심장압박 30회-인공호흡 2회-반복

5) 보건(2010), 교육과학기술부 검정교과서, p216.

#### 다. 심폐소생술 확산 건강캠페인 활동

##### 1) 4분의 기적 생명지킴이 축제 심폐소생술 교내대회(2013.6.29)



##### 3) 전국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충남대회 출전(2012, 2013)



(심폐소생술 보급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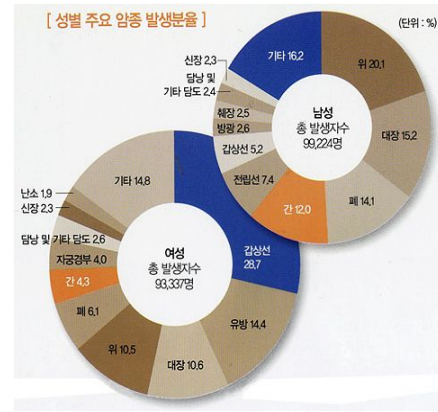
#### 4.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여성의 건강을 지키자.

##### 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필요성

국내 여성암 발병률로는 7위인 자궁경부암이 암종류별 사망률로는 2위에 해당할 만큼 여성건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 및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이 걸리는 많은 암들 중에서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자궁경부암은 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HPV의 16, 18번 감염을 예방접종으로 막으면 자궁경부암 발생확률이 90% 이상 감소한다.<sup>6)</sup>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대부분 성 접촉을 통해 감염이 되므로 가급적 성에 접촉할 수 있는 나이 이전

6) 미예담산부인과([http://www.miyedam.com/clinc/clinc05\\_3.php](http://www.miyedam.com/clinc/clinc05_3.php))

에 접종하는 게 좋으며, 미국에서는 현재 11~12세 여아에게 의무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는 15~17세의 여성에게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건강과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건강한 모성건강을 위하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캠페인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였다.



#### 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필요성 교육하기

- 1) 보건진로동아리 및 4분의 기적 동아리 학생들 교육 및 홍보물 제작(2012. 04. 13)
- 2) 2012년 4월 16일~5월 4일(3주), 07시 45분 ~ 08시 05분(20분)  
교문 앞에서 등굣길 캠페인 하기
- 3) 각 반에서 자료배부 및 설명하기
- 4) 공주시에서 자궁경부암 단체접종 가능 병원 섭외
- 5) 접종방법 및 부작용

접종약	접종시기	방법	비용	부작용
서바릭스	15-17세	0, 1, 6개월	1회당 90,000	발열, 부종, 접종부위 통증
가다실	15-17세	0, 2, 6개월	1회당 120,000	발열, 구토, 어지러움, 설사, 근육통, 전신마비

#### 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캠페인 및 접종현황

구 분	학년	재적인원	접종인원
1차 접종 : 2012. 05. 07-05.12 2차 접종 : 2012. 06. 15-06.16 3차 접종 : 2012. 11. 15-11.17	1	277	103
	2	271	121
	3	276	81
합계		824	305(37%)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홍보하기)

5.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생리통은 진통제보다 찜질팩과 아로마테라피 등 자연요법으로 조절하자.

#### 가. 약물 오·남용 예방의 필요성

게보린의 대표적 성분인 ‘이소프로필 안티리핀’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환각 작용이나 혼수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골수억제 작용이 있어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살 빼는 약으로 오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한 월경불편감 중에서 생리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흔히 진통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고, 올바른 약물 사용과 건강에 해롭지 않은 통증해소법을 교육할 필요를 느꼈다.

공주여고는 전교생이 824명이고 1일 보건실 방문자수가 대략 40-50명이다. 이중 월경불편감으로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30명-35명 정도이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고, 통증을 해소하고자 진통제를 많이 찾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저출산 시대의 모성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증과 불편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 나. 약물 오·남용 예방법 교육하기

- 1) 약물 사용 시 의사, 약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기(연중)
- 2) 자신의 몸에 대해 이해하고 월경불편감 조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 찾아보기
- 3) 찜질팩, 아로마테라피, 테이핑 등에 관해 교육하기(연중)



(생리통 조절을 위한 벨트형 찜질팩)



(심리적 안정 및 진통효과가 탁월한 아로마테라피)





(근육통 및 간단한 염좌를 위한 테이핑 요법)

#### 다. 약물 오·남용 예방 효과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하기 전, 생리통과 생리불쾌감을 호소하던 학생들이 하루 30명-35명 정도였고 대부분 진통제를 복용하였었다. 건강 상담과 교육, 찜질팩, 아로마테라피, 테이핑 등 자연요법 등을 교육한 결과 현재 진통제를 사용하는 학생 수는 1일 1-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보 건 기 록					
순	월/일	학번	증상	치지	
1	9/30	2231	생리통	찜질팩	반남
2	9/30	30718	생리통	"	반남
3	"	30700	생리통	"	반남
4	"	30214	아시클로버(수포)		
5	9/30	3807	생리통	찜질팩	반남
6	9/30	1704	생리통	찜질팩	반남
7	9/30	2817	생리통	찜질팩	반남
8	9/30	2127	생리통	찜질팩	반남
9	"	1118	생리통	찜질팩	반남
10		1215	생리통	찜질팩	반남
11		1104	생리통	아로마테라피	반남
12	9/30	1801	생리통	찜질팩	반남
13	10/1	1102	생리통	찜질팩	반남
14	10/1	2326	생리통	찜질팩	반남
15	10/1	2404	생리통	찜질팩	반남
16		1125	생리통	찜질팩	반남
17	10/1	2502	생리통	찜질팩	반남
18	10/1	1126	생리통	찜질팩	반남
19		3227	생리통	찜질팩	반남
20		1221	생리통	찜질팩	반남

(생리통 조절을 위해 찜질팩을 활용한 예시 - 보건일지)

## IV. 결과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건강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1.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건강습관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토론하여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2. 물 마시는 습관과 비누로 손씻기 등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으며, 교내에 감염병(독감, 불거리, 수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한명 내지 두 명에서 그치고 확산되지 않았다.
3. 21세기에 당면한 다양한 건강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조직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가족 모두 참여하도록 하는 건강운동을 일으켰다.
4. 심폐소생술을 보급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갖게 하고,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였다.
5.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홍보하여 전체 학생의 37%가 접종을 하였으며, 저출산 시대에 여성, 나아가 모성건강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계기가 되었다.
6. 약물 오·남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자신의 신체리듬 및 변화를 관찰하고 자연 요법을 통해 불편함과 통증 및 질병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7. 찜질팩, 아로마오일, 테이핑요법 등으로 약물의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데 이바지 하였다.
8. 여고생들의 가장 큰 건강문제인 월경불편감(생리통, 불쾌감 등)을 찜질팩 적용과 아로마테라피 등 자연적인 요법으로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인 통증을 해소하여 여고생들의 학습 결손 시간을 줄이고, 가장 큰 건강문제를 해결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였다.

## V. 활용방안

공주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건강캠페인의 각 사례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건강의 주체가 되도록 함께 토론하고, 건강캠페인 등에 참여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3. 건강문제는 갈수록 더욱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

해야한다.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가 협력하여야 하고, 사회 경제적인 지원이 따라야 해결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전체 학생이 접종하기 어려웠던 점은, 우선 예방접종약이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3회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과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접종으로 하고, 학생들의 성 행태에 따른 접종시기의 조절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방법을 논의하여보니 법률적인 부분과 비용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

4. 건강에 대한 실천문제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과는 차별화하여야 한다. 보건교육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기술을 습득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체계적인 보건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V . 토론회 활동자료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토론활동 자료**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과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에 대한 토론 : 청소년 선도활동을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의원 장 승 업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과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에 대한 토론 : 청소년 선도활동을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의원 장승업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방향과 내용뿐만 아니라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청소년지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될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총망라하여 청소년의 역량, 참여, 균형, 안전을 목표로 5개 영역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 선도활동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의 가치관 형성은 크게 가정, 학교 및 매스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교육의 목표는 삶의 방식보다는 삶의 목표 즉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더 집착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안 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신은 부정하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정직하게 살도록 훈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사회의 가치관은 목적을 위해 수단이 등한시 되는 경향이 있으며 설령 그 수단이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도 그것을 쉽게 정당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만큼 잘못된 행동이며 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얼마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하며 괴로워하는지에 대하여 인식자체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폭행, 절도, 교사지도불응, 무단결석 및 결과, 가출 그리고 흡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야기한 학생들 대부분이 잘못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며 사회생활에서 기본적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고 삶의

방식에 대한 참교육이 정착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사회에서는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에게 실제로 정직하게 살고 행동하는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은 부정부패한 사람이면서 내 자식의 그리고 우리 청소년의 미래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강요하는 것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은 성인과 아동의 중간단계로 쉽게 탈선할 수 있는 미성숙의 인격체로서 가정·학교·사회의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하나 되어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우리 사회를 담당 할 주역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날로 급증해가는 청소년 유해매체, 잘못된 음주문화, 향락적 소비문화와 더불어 사회적 무관심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비행으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섭취, 폭력, 성매춘 등 탈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문제청소년을 감시하는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경찰청·검찰청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시민 신고체제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탈선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상담 및 단기적으로 긴급위기를 위한 보호 사용되고 있는 일시보호 시설인 쉼터를 지방자치구별로 각각 설치하고 그들을 여기에 수용하여 소규모 가정적 분위기의 시설로 장기체류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입소시켜 인성검사 등을 통한 집중지도 교육으로 취업할 때까지 장기보호 하는 보호시설을 기능적으로 전문화하고 청소년의 욕구충족과 잠재력개발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유해 행위단속, 탈선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범 정부차원의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복지대책이 절실히 요망되며 특히 청소년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종합복지대책의 강구와 청소년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성화 등 단일화의 조직이 요망된다.

청소년의 비행은 학교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혹시 선생님이 제보를 입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년별 반별 생

활지도 평가제가 있어서 겉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내적으로 조용하게 지나치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학년별 반별 평가제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복지문화를 만들어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건 특히 비행 청소년들을 인격체로 인정하여 우리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으로 육성 발전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성개발을 위하여 특별활동을 장려하고, 학습교육 상담과 각종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의 접목으로 청소년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과 독서를 통하여 자기를 개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독서운동 확산이 요망된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많은 정성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보살펴주는 마음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또는 나의 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교육에 임한다면,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그리운 학우들의 3박자가 맞아진다면 교사와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비행 없는 학교생활이 확립될 것이다.

이렇게 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마음의 문을 사랑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교사라는 이기주의를 봉사하는 교사로 학교생활을 펼쳐주신다면 참으로 지금의 선생님 위치가 훨씬 우월한 존경받는 선생님이로 자리하게 되고 학원폭력은 멀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룩할 수 없으며 즉 학생 · 교사 · 학부모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나간다면 좋은 학교가 되리라 확신한다.

농부가 씨를 뿌려 영양분을 주고 꾸준히 보살피는 것처럼 교육도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주고 애정으로 가르쳐야 훌륭한 인재가 탄생된다고 한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청소년 이라는 모토로 지역사회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친구를 지켜주는 친구들 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밝고 건강한 미래의 청소년상을 스스로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세종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생각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고, 밝은 미래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야겠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토론활동 자료**

건전한 청소년 문화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의원 김 학 현



## 건전한 청소년 문화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의원 김 학 현

### 1. 서언 : 들어가는 말

오늘날은 메스미디어의 발달과 활용의 일반화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개개인에게 있는 그대로 노출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와중에 청소년 폭력 사례들도 각종 사회적 현상의 일부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분야로 자리잡게 되었고, 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짐과 동시에 폭력적 청소년 문화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등장하면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는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주의를 끌만한 사건 등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촉발되었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실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종종 주변에서 발생하거나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청소년들의 폭력적 행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기의 특성인 호기심에서 발원(편승)한 일상에서의 일탈과 이에 대하여 주변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빚어지는 사회현상의 일부가 아닌가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내면화 되어 있을 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치유가 가능하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면 수십년 전이나,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나 큰 변화없이 주로 회자되는 말은 아무래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이라는 테마이다. 긴 세월 동안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왔던 것이지만 어떤 것을 건전한 문화라고 할 것이며, 무엇을 청소년 문화라고 단정할 것인지에 관한 대답은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탈바꿈해 왔다.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 접근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2. 본론



## 가. 청소년 폭력 발생원인의 고찰

학교폭력 혹은 청소년 폭력은 아마도 청소년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행위를 표출하는 이유는 일상적으로 억압된 욕구를 해소하고 일상적 공간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행동기제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으로써 집단적 청소년 문화에 동화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성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쟁에 의한 각종 사회적 제약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폭력은 다양한 환경만큼이나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폭력의 발생원인을 고찰해보면 - 집단의 규모는 별론으로 하고 - 대부분 그 집단내 구성원으로써의 소외감과 죄책감 등을 합리화하고 감추기 위해 자신 앞에 보여진 상징적인 힘에 저항하여 반응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학교나 일반사회의 구조가 경쟁적인 구조로 될수록, 자신의 삶이 타의(학교나 지역사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할수록, 집단내에서의 실패 또는 소외감은 견디기 힘들므로, 집단내의 상징적 권력에 저항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합리성을 부여하는 한편 소속감에 대한 대리만족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나. 환경적 실태에 관한 고찰

학교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은 현실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만 하는 여건으로 경직화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의 탐색을 통한 주체적 판단력의 배양은 교육이론서의 몇몇 페이지만 차지하고, 그 대신에 입시라는 지극히 방편적 목표를 위해 매진함에 따라 그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과 육체는 획일적인 억압과 통제, 부모와의 가치관 갈등 등 고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찾는 놀이공간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반면에 청소년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학교로부터, 성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기타 주위에 있는 여러 조건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의 해소는 물론, 자신들의 욕구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양태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숨 쉬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공간 또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데서도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취미와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새로운 체험의 공간, 휴식과 대화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결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과 느낌,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주체적으로 키워나가기 좋고 싫음, 맞음과 틀림, 적법과 불법, 정당과 부정당의 판단경계를 넘어 무작정 자신들의 내면을 헤아려 줄 것으로 여긴 사회 즉, 학교 밖으로, 가정 밖으로 뿔쳐 나가게 되며, 더욱 나아가서는 폭력을 유발하는 요소로 가슴에 품게되고 그러한 행동으로 작용하게 된다.

## 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1) 상호 존중과 배려의 운동

존중과 배려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며, 남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도 바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다. 현대의 다양한 질서 속에서는 나와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즉, 반목과 갈등이 상존하지만, 그 규모나 추구하는 내용이 다르더라도 반목과 갈등내용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해결하려는 문화가 뿌리내린 청소년 또래집단에서는 건전함을 뛰어넘어 명품의 청소년 문화로 승화되고 나아가 명품이 가득한 사회적 문화 육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학교현장과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인성을 위하여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대변해 주며, 옹호해 주고, 희망을 주는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상호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특정사안에 대한 계기적 활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살아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 2) 준거집단 활동의 활성화

건전한 이성교제의 기회, 노래와 춤, 영상문화 등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문제의식과 감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준거집단을 만드는 것보다는 작지만 탄탄한 소집단들을 만들어 현재의 지배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상징을 만들 수 있다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기라는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청소년들이 동화되기를 바라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문화의 모델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청소년 집단은 그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역할과 행동방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사회화에 기여하게 한다. 특히 구성원들에게 나와 다른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사회에서 역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문화는 현재, 기쁨, 집단에의 소속감 등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최소한 청소년 문화의 현재 우선주의는 사회적 성취를 이뤄야 하는 데서 오는 긴장감을 막아준다.

### 3) 평생교육연구원 및 문예예술회관 활용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토론을 벌이는 기회와 공간이 전무하다면, 청소년 문화는 대중 소비문화 자체가 유일한 문화로 변질되어 청소년 문화의 다양성과 통합성, 청소년의 현실과 구성에 대한 토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안적 청소년 문화의 장을 조금씩이나마 열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시문화원, 평생교육연구원, 기타 대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의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자살, 교권침해 학생들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땀을 흘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동하여 공동의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각종 활동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이 즐거운 또래생활을 함으로써 폭력성을 완화시키고 협동과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제공
- 그룹댄싱, 에어로빅, 장기자랑 등 어울림 한마당 축제 : 수능시험 후
-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한 청소년 소극장 운영
- 학교동아리 단체를 주축으로 청소년들의 직접참여  
(볼거리 및 체험거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여건조성
-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행사
- 락밴드, 댄스, 가요 경연대회 및 청소년 참여 전시
-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축제
- 교육기부를 통한 연주체험 프로그램

### 4) 인터넷시대에서의 건전한 청소년문화 확립 : 사이버윤리교육 강화

뉴밀레니엄시대에 인간이 만들어 낸 20세기 최고의 과학산물이자 최대의 과학혁명인 인터넷은 초기에 군사적, 학문적 목적으로 쓰였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일반에 공개되면서 인간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생활에 깊숙히 자리잡으면서 형성되는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가 과연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은 청소년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호연지기의 개척정신을 길러주는 무한한 세계이다. 동시에 불건전한 정보가 넘쳐나고, 언어폭력 등 사이버예절(네티켓)이 실종될 정도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위험지대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터넷시대의 청소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필요가 있다. 그들만의 「인터넷문화」가 과연 건전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사회도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3. 결론 : 제언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체, 자신의 내면적인 힘과 창의력을 살리고 적극적인 선택을 통하여 생산적 삶을 사는 주체로의 형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청소년(학교) 폭력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 결손가정문제, 폭력을 조장하는 게임물 등 다양한 사회적·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각자의 절대적 가치에 따라 꿈을 꿀 수 있는 여건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청소년들로 하여금 상호간에 진심으로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상대방과 나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이라는 것은 일반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또는 일반시민의 일원으로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즉, 함께 어울리고 뒹굴며 살아가는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역할분배와 더불어 그 책임이 강조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을 위한 정책 추진이 그 해답일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 폭력은 경찰, 교육당국, 학부모, 학생들 모두의 관심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토론활동 자료**

세종특별자치시의 첫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제시방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의원 김 부 유



## 세종특별자치시의 첫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제시방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의원 김 부 유

2006년 지방선거에 선출직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 후 지역 내의 다른 단체 일들을 열심히 하던 중에 보유하고 있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저에게 현재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지부의 전신인 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지회 지회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선뜻 응하여 지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한국청소년진흥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회장을 맡아 들어왔을 2008년 당시 연기군에 청소년관련 전문단체로는 유일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진흥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어 들어온 한국청소년진흥재단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시도 크게 나아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후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된 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촉구하며 관련 조례들을 발의하면서 3년이 걸려 이제야 세종시 최초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위탁법인(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지부장 조주환)의 현황을 보면 현재의 세종시문화예술회관 3층 한켠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설되며 현재 시범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법인에서 마련한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문화예술회관 2층에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굴렁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이용과는 별건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청소년문화존 행사는 수련관 등이 없어 매달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힘들게 장소를 확보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업무 특성상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이 어려워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 하나를 임대하여 좁은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연기군 시절과 비교하여 전혀 나아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수련관을 건립하게 되는 세종시 전체 인구는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120,765명이고 이 중, 청소년 인구는 21,203명입니다. 이를 세분화 해보면 9세에서 13세까지가 6,622명, 14세에서 18세까지가 6,579명, 19세에서 24세까지가 8,002명입니다. 수련관이 위치하는 조치원읍에는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2개교, 초등학교 5개교로 가장 많은 청소년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세종시로 이주하여 오는 외부 유입 인구층을 보면 그 주된 연령대가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후 이들의 자녀들을 감안할 때 청소년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초 착공될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세종시 정부청사 구역, 북부지역과 서남부 지역 등에도 추가로 확보를 할시 표준모델이 될 중요한 수련관이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수련관 건립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첫 청소년수련관은 공무원적인 행정적인 사고력과 이를 이용하는 주된 계층인 청소년의 생각과 청소년단체를 운용하는 관계전문가, 건축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대에 맞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했던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계기가 되어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결실을 보고 건립모델에 대한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전문가가 아닌 청소년들과 직접 생활하면서 느꼈던 의회 의원으로서 해외연수 시 방문했던 외국의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짚어보며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련관 건립모델에 대한 저의 의견은,

첫째, 현재의 수련관 부지는 공원구역으로 건축물은 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네모반듯한 건축물이 아닌 외형과 내부시설을 건축 시 공원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진행시 건축가만의 생각이 아닌 건축추진위원회의 다양한 의견들과 청소년들의 생각을 함께 담아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내부 설계 시 좁은 건축물의 평수를 고려하면서 수납식 강당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일상 시에는 의자 등이 있는 객석과 전면에는 작은 강단 등이 있는 일반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는 강당 역할을, 필요시에는 객석의자가 수납이 되어 레크레이션이나 무용과 악기 연주 등의 연습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 등으로 설계가 되고,

셋째, 현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접근성이 좋은 수련관 한 개 층의 통합공간에 구성 배치되어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한 결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련관 건립 시 장애 청소년등과 약자배려의 마음을 담아 출입문턱과 엘리베이터 크기, 화장실, 통로등을 일반인 평균이 아닌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선진 외국의 경우는 장애인

배려가 필수임)

결론으로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 공간, 만남과 휴식의 공간, 정보의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체험활동의 장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일탈을 예방함은 물론 창의적이고 건전한 미래의 주역으로 육성함을 기본으로 하는 미래형 건축 공간 구성과 생활권수련시설의 목적까지 겸비한 시설구축으로 공연장, 멀티미디어실, 인터넷카페, 공연 연습실, 음악 연습실, 노래 연습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 등이 짜임새 있게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중 음악교실, 문예창작교실, 창작미술교실, 풍물교실, 창의력 발명교실, 댄스교실, 공예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인터넷정보검색 등을 위해 청소년들이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주변 공원지역을 연계하여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지역의 성인 합창단등과의 협연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공조로 공원 리모델링 공사 전에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공간구성에도 협력을 하여 세종시 최초의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정 부지가 조치원읍의 시내에 있고 주변 학교와의 거리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등에서도 함께 공연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시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청소년 전문가와 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여 작지만 알차고 효율성이 극대화된 모델로 제시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수련관으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토론활동 자료**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헌료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과

과장 강 희 동



##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과  
과장 강 희 동

### ▷ 청소년수련관 설립개요

- 위 치 : 조치원읍 평리 12-2 외 7필지
- 부지면적 : 2,853㎡(864.5평)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1,500㎡(454평)
- 주요시설 : 실내집회장, 북카페, 연습실, 동아리방, 실내체육시설 등
-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 소요예산
  - 당초 3,052백만원(기금 2,413백만원, 시비 639백만원)
  - 변경 3,519백만원(기금 2,413백만원, 시비 1,106백만원)
- ※ 시비 467백만원 상승

### ▷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적 특성

- 민주시민의 양성소로서의 역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역할 수행
- 지역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전망됨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수련관은 실내집회장, 북카페, 연습실, 동아리방,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어 세종시 관내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청소년 중심의 문화활동 촉진과 공간을 제공.
-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기능과 교육기능의 역할 보완.  
(참여, 실천, 목적의식, 친밀감을 증대 시킴)

### ▷ 청소년수련관의 지리적 특성



-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 조치원을 평리에 위치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 학교들이 위치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 평리근린공원과 조천이 위치하며, 쾌적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사회생활로 유도하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제공한다.
- 세종시 북부지역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형성과 균형 있는 성장을 하여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균형적인 도시를 형성.

#### ▶ 향후 추진방향

- 세종시 북부지역 주변학군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여가활동, 취미, 개성 등을 개발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형성
  - ⇒ “청소년 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 문화존” 형성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제공



▷ 세종시 학교 현황

-대상시설 : 초등학교:23개소, 중학교:10개소, 고등학교7개소

○초등학교

연번	기관명	구분	주소	전화번호
1	조치원대동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동학교길 11	861-4603
2	조치원명동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10길 35	865-2754
3	조치원교동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8길 21	863-6472
4	조치원신봉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향나무길 10	862-3930
5	연동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606-36	864-7039
6	연기도원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도원로 63	868-7212
7	연서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서로 148	867-7033
8	쌍류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별말길 73	863-1929
9	연봉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당산로 357-1	867-0004
10	연남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길 2	863-4500
11	수왕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놀왕길 8-45	863-4357
12	금남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금남구죽로 62	866-7052
13	감성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감성길 6	866-7058
14	전의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운주산로 1204-9	863-1451
15	소정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학교말길 10	566-6060
16	전동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하노장3길 9	863-1208
17	참샘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노을1로 29	868-3781
18	부강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로 15	275-4051
19	장기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398-9	857-4066
20	의량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태산길 50-1	852-6871
21	한솔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누리로 32	410-4301
22	도담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10-1	410-0102
23	연세초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439-5	860-6500

## ○중학교

연번	기관명	구분	주소	전화번호
1	조치원중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중고길 10-1	863-0773
2	조치원여자중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160	864-2072
3	연동중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로 10-13	864-7022
4	연서중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서로 115	867-0083
5	금호중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금남구죽로 196	866-7802
6	전의중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운주산로 1260-6	863-3201
7	한솔중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나리로 43	868-1733
8	부강중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로 25-7	275-4081~3
9	장기중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359	858-2135
10	도담중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산 13	410-0210

## ○고등학교

연번	기관명	구분	주소	전화번호
1	세종고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중고길 10	865-1003
2	조치원여자고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로 16	862-1083
3	한솔고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누리로 34	410-4101
4	세종하이텍고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달미길 6	275-4092
5	세종국제고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410-0501
6	도담고등학교	공립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68	410-0311
7	성남고등학교	사립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97-17	860-3700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토론활동 자료**

존중과 배려의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 이 길 주



## 존중과 배려의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 이길주

우리사회가 산업화되고 다원화되면서 학교에서도 정서적인 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공동사고를 가지고 지도해 나간다면 충분히 행복한 학교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생 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 피해·가해 학생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강화, 현장·학생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현장중심의 근원적인 학교폭력 예방책 강화를 들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및 학생을 위험하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각도에서 청소년 폭력예방과 존중과 배려의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천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1.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

현재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 세계인을 살펴보면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적용되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인간상으로 교육 내용 전반을 통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학교, 지역사회 등 공동체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목표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10여년 만에 개정되어 적용하고 있다. 이제는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재를 길러 내고자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

### 2. 올리사랑운동 전개

올리사랑운동<sup>7)</sup>은 우리교육청이 지난해 7월 개청하면서 추진해 오고 있는

7) 올리사랑은 내리사랑의 반대말로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정신을 일컫는 순수한우리말임

역점사업으로 ‘더불어 사는 인재육성을 위한 효(孝)교육’이다. 우리나라 가정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효’에 대한 개념이 많이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교육청은 전래동화나 교과서 속의 효교육을 끌어내어 현대 감각에 맞는 효교육 운동을 펼쳐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게 하여 바른 인성 함양은 물론 체험위주의 효교육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사랑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동아리별로 복지시설, 노인회를 찾아 다양한 효행 봉사활동 등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릴적부터 웃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습관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3. 학생 언어문화 개선 사업 전개

학교폭력이 예전에는 신체접촉으로 한정하였으나 지금은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의 일어나는 근원이 사실 언어에서 비롯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면면히 살펴보면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로 끝맺음하는 학생들이 많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욕설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할 뿐만 아니라 개념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존중과 배려하는 비폭력 청소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저속어, 은어, 욕설 등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 전개와,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참운동’<sup>8)</sup>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언어문화 개선사업을 각 학교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참운동은 학부모, 지역사회 어른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寸鐵殺人(촌철살인)’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언어 순화를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행복한 학교문화가 구축될 것이다.

### 4. 상담문화 및 또래 조정사업 추진

학생이 공감하는 상담 활성화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은 물론 위기 학생과 관심학생 집중 상담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3~고3 전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과 해석 및 상담은 Wee센터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또래 문화 조성 및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 자치활동을 활

8) ‘지참운동’은 학생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누구나 지도하고 참견하여 선도하는 운동으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모두 참여하기 프로그램임

성화하기 위하여 또래조정<sup>9)</sup>사업 3개교 운영 및 또래 상담 사업 15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학생 상호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학생 스스로 갈등 조정을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전교육과 체험들을 통해 양성된 갈등 조정자 학생으로 하여금 협상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좋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현황은 표와 같다.

■ 2012학년도(2012.7.1. ~ 2013.2.28.)

구분	금품갈취	폭행	따돌림	언어폭력	성추행	괴롭힘	장난	기타	발생건수
초		2				1	1		4
중	6	8	1	2	1				18
고	1	11	3	4	2	1			22
계	7	21	4	6	3	2	1	0	44

■ 2013학년도(2013.3.1.~ 2013.5.현재)

구분	금품갈취	폭행	따돌림	언어폭력	성추행	괴롭힘	장난	기타	발생건수
초									0
중		3	1		1				5
고		1							1
계	0	4	1	0	1	0	0	0	6

2012 대비 3개월 자료지만 증가폭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폭력없는 학교 문화,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정교육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기능이 학교 교육만으로 의존하게 되는 현실에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지난해에 ‘밥상머리교육’ 등 자녀와의 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가정교육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9) 학생중심의 자율적 학교폭력 갈등예방 수단으로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갈등상황을갈등 당사자인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길러내기 위해 학교는 물론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토론활동 자료**

청소년 정신건강

공주여자고등학교  
보건교사 김 종 림



## 청소년 정신건강

공주여자고등학교  
보건교사 김 종 림

전국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후 폭풍은 학생들을 집단적 정신질환자들로 만들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CPSQ(아동 정서·행동발달 검사도구)문항으로 학생과 학부모 설문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교사에게 AMPQ-II(청소년 정서·행동발달 검사도구)평가를 통해 1차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30%가 관심군으로 2차 검사대상자가 되어 학교와 학부모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고, 그 사후 대책으로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보건실을 찾아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상당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 증상인 경우가 많고, 그 학생들 중 이번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서-행동발달 검사에서는 2차 검사 대상자가 아니던데...” “선생님, 그거 제대로 체크한 아이들은 별로 없을 걸요? 집으로 알려지는 것도 싫고, 학교에 문제 학생으로 찍히는 것도 싫어서 대부분 반대로 체크했어요.”

이 학생의 경우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불면증에 소화불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위 검사로 스크리닝을 할 수 없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첫째, 초등학생에게는 검사문항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렵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단순하다.

즉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대상자 중 20-30%가 관심군으로 선별되는 검사지를 과연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이 검사를 실시한 학교 담당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다.

‘자살’, ‘우울’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초등학생들은 적당히, 혹은 장난스럽게 모두 1번에, 중·고등학생 중 신중한 아이들은 그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의 정서 상태와 다르게 모두 반대로, 학부모님들은 혹여 아이의 장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 염려하여 ‘이상없음’에 표기를 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검사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지에 체크를 해야 했다.

정서적 감정변화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은 고도의 학습과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어른들로 쉽지 자신의 감정변화를 감지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우울한 감정이 잠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보건교육 없이 검사를 하고, 3차 대상자로 낙인찍어,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치료받으라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기막히고 당황스러운 일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셋째, 정신건강검진은 X-ray검사처럼 일률적으로 문제 상황을 찍어낼 수 있는 검사가 아니며, 주변 환경과 그날의 기분상태, 신체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진 결과를 낼 수 있다.

학생들은 전교생 동시에 같은 시간에 교실에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받았다. 아침밥을 먹지 못했거나, 배탈이 난 학생들, 부모님께 꾸중이라도 들은 학생들은 부정적인 답을 하였거나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즉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사를 과연 얼마큼 신뢰할 수 있을까? 정신건강에 대한 주의환기에는 아주 효과적이었으나, 정신건강관리와 검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넷째,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정책은 선 진단 후 치료가 아닌, 선 예방교육 후 진단이어야 한다.

모든 질병이 진단이 내려지고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에 문제점이 있다. 질병은 단순히 감염균의 침입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과 유전, 오랜 생활습관, 의료제도, 병원균, 사회적·물리적 환경 등 아주 복잡한 상황의 결과물이다. 정신병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질병발생은 진단이 내려지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아주 서서히 진행되다가 결정적 시기에 증상을 나타내고, 이때서야 진단이 내려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사실 하나, 질병을 예방할 기회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며, 그 방법을 정부가 나서서 교육해야 하며, CDC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1달러를 보건교육에 투자하면 14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 의료보험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보건교육에 있는 것이다.

학교보건법 제 9조, 제9조의 2, 제15조는 "정신건강 증진"을 보건교육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교과부장관이 정한 도서와

시수에 따라 보건교사에게 배우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보건교육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수권은 실종된 채, 검사만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취학 전 2회, 초등학생 2회, 중·고교생 1회씩, 20대 3회,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2회씩 정신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드는 의구심은 언제 이렇게 국민건강에 대한 중요정책이 논의되었고, 결정되었으며, 그 대상자인 국민들은 왜 몰랐냐는 것이다.

한글이 만들어질 당시 최만리는,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여 법을 농간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까 크게 염려됩니다." 라고 반대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세종대왕께서는,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한자는 배우기 힘든 글이오. 백성들의 눈가 귀를 막아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오?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스스로 억울함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며,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오." 라고 말씀 하셨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관해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도 있는 것일까?

건강과 의료에 관한 권한이 권력화 되어 병원과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지한 우리 백성들은 정신병 진단을 앞두고 불안에 떨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알권리를 지켜줄 대왕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보건교육을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보건교사로서 학생과 국민들께 죄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 Ⅵ. 언론보도 자료





#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신발끈 맸다’

세종시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각종 연구회가 발족식을 갖고 군부대 이전 추진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 연구모임인 보건복지정책 연구회(회장 김부유 시의원)가 15일 오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상임위원회실에서 공식 발족한다.

이 연구회는 향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등 각 기관의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한 실태 파악과 세종시의 건강증진, 복지정책 제언, 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성과를 시책에 반영, 이를 토대로 보고서 발간 등 정보를 공유해 안정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지역사회 복지행정과 보건교육 실태파악과 분석조사를 실시하고, 5월과 6월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정책연구회는 복지행정과 보건교육행정의 유사성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각 행정의 장·단점을 보완해 일관성 있는 보건정책 추진으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는

##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오늘 발족 본격 활동

보건정책 일관성 등 강조

시민 건강권 일익 기대

## 도시계획연구모임

연서·소정면 군부대

이전 필요성 등 부각

지역민 숙원 해결 나서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종시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회장 이경대 시의원)은 오는 4월 1일 군부대 주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여론수렴 및 현황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군부대 현황

과 집행부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공동으로 이전 사업을 촉구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연구모임은 첫 번째 과제로 세종시에 주둔하고 있는 연서면 월하리 소재 항공부대와 소정면 유류지원대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과 이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연서, 연기면 소재 항공기지 두 곳은 모두 2243㎡로 세종시 전체 군부대 면적의 59.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도 유한식 시장과 군형발전 관련 공무원 등이 3차에 걸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 사령부를 방문하고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

세종시에는 현재 군부대가 모두 12곳으로 연서, 금남, 연기면 각각 2곳, 그리고 전의, 소정, 부강면 등에 주둔하고 있다.

세종=정창희 기자  
15.4 X 13.1 cm

서울일보

2013년 03월 18일 (월)  
11면 총형/강원

# 건강증진 위한 복지정책 발굴 논의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창립대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가 지난 15일 11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보건복지정책연구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활성화를 위한 시청과 시교육청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번 창립대회에서는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논의했는데 3월부터 8월까지는 세종시 지역 복지행정 및 보건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 5~6월에는 현장 방문, 11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표 김부유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복지행정과 보건교육행정의 유사성 및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 각 행정의 장·단점을 보

완해 전 생애에 걸친 일관성 있는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회원은 김부유 의원(대표), 김종림(간사), 김학현 의원, 장승업 의원, 박연숙 공주대 교수, 이길주 세종시교육청 장학관, 강희동 사회복지과장, 신정교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선희 사무관이다.

김준용 기자

kjy@seoulilbo.net

15.2 X 16.7 cm



## 충청투데이

#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창립대회

현장실태 파악·정책발굴 계획

2013년 03월 18일 (월)  
15면 지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7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가 15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보건복지정책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한 시청과 시교육청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창립대회에서는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논의했는데 ▲3월부터 8월까지의 세종시 지역 복지행정 및 보건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 ▲5~6월에는 현장 방문 ▲11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표 김부유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복지행정과 보건교육행정의 유사성 및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 각 행정의 장·단점을 보완해 전 생애에 걸친 일관성 있는 정책 제언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회원은 김부유 의원(대표), 김종립(간사), 김학현 의원, 장승업 의원, 박연숙 공주대 교수, 이길주 세종시교육청 장학관, 강희동 사회복지과장, 신정교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선희 사무관 등이다. 황근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가 15일 창립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종시의회 제공  
21.4 X 9.4 cm

대전투데이

2013년 09월 11일 (수)  
02면 정치

##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노인보호 전문기관 견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사진) 회원과 관계공무원 등 12명은 세종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여 대안을 시정에 제시하기 위해 10일 충청 아산에 위치한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견학했다.

이번에 견학한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에 설립하

여 충청남도 시·군 내 노인 학대 관련 상담과 홍보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부설로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시보호와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쉼터(푸른쉼터)가 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정책연구회 대표 김부유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학대는 2010년 111건에 그쳤으나 2011년 144건, 2012년 173건, 올해 7월까지

311건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세종시에도 전문기관과 보호시설을 설립하여 노인 학대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대인 줄 모르고 저지르거나 학대받는 노인이 자식에게 피해 갈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정복 기자

15.5 X 6.9 cm



# 청소년수련관 최적모델 모색

## 세종시의회 토론회 개최

세종시의회가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세종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과정에 본격 뛰어들었다.

시의회는 5일 세종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환준 의장, 김부유 의원, 박영송 의원,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에 대한 효율적 건립 규모, 프로그램 개설, 관련시설 설치 등 적절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5일 세종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 참석자들이 건립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기조강연에 나선 황미영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은 “청소년 시설이 지역사회 의 중심축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 폭력, 가출, 위험·비행행동 등을 개선하거나, 핵심 기능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확장될 것이며, 민간의 참여도가 증진되는 부수적 효과도 일어날 것”이라며 “청소년시설의 기

능은 사회가 지역 내에서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인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부유 의원은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자신이 정체·주체성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완비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

됐으면 한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놀이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청소년수련관은 복권기금 23억 8400만원, 시비 11억 16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세종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95@ccoday.co.kr](mailto:dong95@ccoday.co.kr)

25.6 X 9.7 cm

## 忠淸日報

#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해법 모색

## 세종시의회, 토론회 가져

세종시의회가 5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세종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형석 KT&G 상상마당 논산 운영자 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청소년수련관 모델”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하고, 지정토론에서는 류권욱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류다예 세종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박진만 테마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부유 세종시의회 의원, 강희동 세종시 사회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부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완비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놀이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범찬기자

17.6 X 5.4 cm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방안 찾다

세종 보건복지정책 연구모임 토론회 100여명 참석

세종시의 보건복지정책 연구모임에서는 20일 14시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청취와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여 향후 세종시의 발전을 담당할 미래 인재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인터넷 중독예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류권옥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류다예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원의 '청소년이 바라보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해결 방안' 김종림 공주여고 보건교사의

'청소년 정신건강', 이순민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의 '청소년 보호차원의 미디어 중독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부유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중독된 청소년들을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상담·치료의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방법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kji@seoulilbo.com

14.8 X 18.1 cm



홈 > 뉴스 > 뉴스 > 세종지역뉴스

##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창립대회 개최

2013년 03월 16일 (토) 15:58:17

이준희 기자 [rycier@naver.com](mailto:rycier@naver.com)

[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시의회 3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가 15일 11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정책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활성화를 위한 시청과 시교육청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번 창립대회에서는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논의했는데, ▲3월부터 8월까지의 세종시 지역 복지행정 및 보건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 ▲5~6월에는 현장방문 ▲11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표 김부유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복지행정과 보건교육행정의 유사성 및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 각 행정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전 생애에 걸친 일관성 있는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둘 것이다.” 고 밝혔다.

이 연구모임은 김부유 의원(대표), 김종림(간사), 김학현 의원, 장승업 의원, 박연숙 공

주대 교수, 이길주 세종시교육청 장학관, 강희동 사회복지과장, 신정교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선희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 MBS인터넷뉴스(<http://www.mbs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인쇄하기 ☒ 창닫기



##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창립대회 개최

충청인 cndnews@cndnews.co.kr



[세종=뉴스충청인] 세종시의회 3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가 15일 오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보건복지정책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는 세종시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한 시청과 시교육청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번 창립대회에서는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논의했는데, ▲3월부터 8월까지의 세종시 지역 복지행정 및 보건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 ▲5~6월에는 현장 방문 ▲11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표 김부유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복지행정과 보건교육행정의 유사성 및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 각 행정의 장·단점을 보완해 전 생애에 걸친 일관성 있는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 연구모임 회원 : 김부유 의원(대표), 김종림(간사), 김학현 의원, 장승업 의원, 박연숙 공주대 교수, 이길주 세종시교육청 장학관, 강희동 사회복지과장, 신정교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선희 사무관



##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창립대회

(세종=뉴스1) 이선희 기자 입력: 2013.03.15 18:29:39



© News1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가 15일 창립대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가 15일 오전 11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세종시의회 3개 연구모임 중 하나인 보건복지정책연구회는 시와 시교육청의 보건복지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 복지정책을 발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창립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3월부터 8월까지의 세종시 지역 복지행정 및 보건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 ▲5~6월에는 현장 방문 ▲11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기로 했다.

김부유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복지행정과 보건교육행정의 유사성 및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 각 행정의 장·단점을 보완해 전 생애에 걸친 일관성 있는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부유 의원(대표), 김종림(간사), 김학현 의원, 장승업 의원, 박연숙 공주대 교수, 이길주 세종시교육청 장학관, 강희동 사회복지과장, 신정교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선희 사무관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홈 > 뉴스 > 정치/행정 > 세종시정

##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창립대회

현장실태 파악·정책발굴 계획

2013년 03월 18일 (월)

황근하 기자 ✉ guesttt@cctoday.co.kr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가 15일 창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가 15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보건복지정책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한 시청과 시교육청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창립대회에서는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논의했는데 △3월부터 8월까지에는 세종시 지역 복지행정 및 보건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 △5~6월에는 현장 방문 △11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표 김부유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복지행정과 보건교육행정의 유사성 및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 각 행정의 장·단점을 보완해 전 생애에 걸친 일관성 있는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회원은 김부유 의원(대표), 김종림(간사), 김학현 의원, 장승업 의원, 박연숙 공주대 교수, 이길주 세종시교육청 장학관, 강희동 사회복지과장, 신정교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선희 사무관 등이다.



##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창립대회 가져

11일 세종시의회에서...대표에 김부유 의원

2013년 03월 15일 (금) 20:01:00

이원구 기자 ✉ [ebaekje1@hanmail.net](mailto:ebaekje1@hanmail.net)



창립대회를 연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가 15일 11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보건복지정책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활성화를 위한 시청과 시교육청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이번 창립대회에서는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논의했는데, ▲3월부터 8월까지의 세종시 지역 복지행정 및 보건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 ▲5~6월에는 현장 방문 ▲11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표 김부유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복지행정과 보건교육행정의 유사성 및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 각 행정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전 생애에 걸친 일관성 있는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둘 것이다.” 고 밝혔다.



홈 > 뉴스 > 전국 > 대전/세종 | 포토

## [포토]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창립' 김부유 대표

2013년 03월 16일 (토) 11:36:55

김지현 기자 ✉ kjh@newsj.com



▲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김부유 대표가 15일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창립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개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가 15일 오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했다.



보건복지정책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활성화를 위한 시청과 시교육청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 연구회를 구성했다.

이날 대표 김부유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복지행정과 보건교육행정의 유사성 및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각 행정의 장·단점을 보완해 전 생애에 걸친 일관성 있는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 뉴스천지(<http://www.newscj.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인쇄하기  창닫기



홈 > 뉴스 > 전국 > 대전/세종

## [포토] 세종시의회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

2013년 06월 09일 (일) 09:59:21

김지현 기자 ✉ kjh@newscj.com



▲ 7일 세종특별자치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가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연구원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가 세종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의원) 주관으로 7일 열렸다.

세종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폭력예방과 존중 및 배려의 청소년문화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를 이날 오후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연구원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장승업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과 김부유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원들과 학부모, 청소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뉴스천지(http://www.newscj.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홈 > 뉴스 > 전국네트워크 > 충청

## 세종시의회,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

2013년 06월 09일 (일) 14:57:13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의원)는 지난 7일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연구원 다목적홀에서 청소년 폭력예방과 존중 및 배려의 청소년문화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를 시의원,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인쇄하기 ☒ 창닫기



홈 > 뉴스 > 지역 > 세종/연기

## 세종시의회, 학교폭력 토론회 개최

2013년 06월 08일 (토) 21:22:59

정장희 jjh0011@ggilbo.com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의원)는 지난 7일 세종시 평생교육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폭력 예방과 존중 및 배려의 청소년 문화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 문화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 학부모, 청소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행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물질만능 향락주의적 사회분위기 속에 온 오프 라인(On-Off Line) 상 유희환경 범람함에 따라, 청소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미흡하고 가해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의회가 추진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세종시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전국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소년 폭력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경기대 김대유 교수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했고, 토론자로 김준환 충청대학교 교수, 심은석 세종경찰서장, 이길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 김학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영미 서울시교육청 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세종=정장희 기자

## 청소년 폭력 제로 머리 맞대

시의회 토론회 선도지원 확대 등 제기

존중과 배려의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가 7일 열렸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의원)가 주관한 토론회는 시의원,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 세종시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종시 출범 후 유해환경이 범람함에 따라 청소년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미흡하고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토론회에는 김대유 경기대학교 교수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에는 류권옥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사회로 김준환 충청대 교수, 심은석 세종경찰서장, 이길주 세종시교육청 장학관, 김학현 세종시의원, 김영미 서울시교육청 폭력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했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 개최

세종시의회 장승업의원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 다할터"

윤소 기자 | 등록 : 2013-06-09 12:17 | 수정 : 2013-06-09 12:17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의원 / 사진)가 주관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폭력예방과 존중 및 배려의 청소년문화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가 6월 7일 오후 2시,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연구원 다목적홀에서 시의원,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물질만능 향락주의적 사회분위기 속에 On-Off Line상 유해환경 범람함에 따라, 청소년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미흡하고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토론회를 통하여 세종시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전국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소년 폭력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였는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유 교수(경기대학교 교직학과, 교육학박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회 좌장은 류권옥 센터장(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맡고, 토론자로 김준환 교수(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심은석 서장(세종경찰서), 이길주 장학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학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미 대책위원(서울시교육청 폭력대책위원회)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의 진행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부유 의원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김부유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세종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상호존중 및 배려의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확립’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소 기자 6649@

홈 > 뉴스 > 시티뉴스 > 행정

## 청소년문화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폭력예방과 존중

2013년 06월 07일 (금) 19:18:53

임현선 기자 ✉ [sunright@citytimes.co.kr](mailto:sunright@citytimes.co.kr)



장승업 의원

세종시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의원)가 주관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폭력예방과 존중 및 배려의 청소년문화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가 6월 7일 오후 2시,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연구원 다목적홀에서 시의원,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물질만능 향락주의적 사회분위기 속에 On-Off Line상 유해환경 범람함에 따라, 청소년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미흡하고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토론회를 통하여 세종시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전국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소년 폭력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였는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유 교수(경기대학교 교직학과, 교육학박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회 좌장은 류권옥 센터장(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맡고, 토론자로 김준환 교수(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심은석 서장(세종경찰서), 이길주 장학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학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미 대책위원(서울시교육청 폭력대책위원회)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의 진행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부유 의원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김부유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세종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상호존중 및 배려의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확립’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 씨티타임즈(<http://www.city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 세종시의회 행복위,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

기사등록 일시 : [2013-06-07 17:36:17]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의원)는 7일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연구원 다목적홀에서 청소년 폭력예방과 존중 및 배려의 청소년문화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를 시의원,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2013.06.07.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2013-06-07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의원)가 주관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폭력예방과 존중 및 배려의 청소년문화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를 7일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연구원 다목적홀에서 시의원,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물질만능 향락주의적 사회분위기 속에 On-Off Line상 유해 환경 범람함에 따라 청소년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미흡하고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추진했다.

토론회를 통하여 세종시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전국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소년 폭력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관련 각계 전문가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유 교수(경기대학교 교직학과, 교육학박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회 좌장은 류권옥 센터장(세종시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이 맡았다.

토론자로 김준환 교수(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심은석 서장(세종경찰서), 이길주 장학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학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미 대책위원(서울시교육청 폭력대책위원회)이 참여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의 진행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부유 의원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김부유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세종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and 청소년 상호존중 및 배려의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를 확립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nws5700@newsis.com



홈 > 뉴스 > 정치/행정 > 세종시정

## 세종시의회,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

행정복지위 주관, 관계자 200여명 참석 실태·대안 논의

2013년 06월 10일 (월)

황근하 기자 ✉ guesttt@cctoday.co.kr



▲ 세종시 청소년 폭력예방과 존중 및 배려의 청소년문화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연구원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가 주관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폭력예방과 존중 및 배려의 청소년문화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연구원 다목적홀에서 시의원,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물질만능 향락주의적 사회분위기 속에 온-오프 라인(On-Off Line)상 유해환경이 범람함에 따라, 청소년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미흡하고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추진하게 됐다.

토론회를 통하여 세종시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전국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소년 폭력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유 교수(경기대학교 교직학과, 교육학박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회 좌장은 류권욱 센터장(세

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맡고, 토론자로 김준환 교수(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심은석 서장(세종경찰서), 이길주 장학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학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미 대책위원(서울시교육청 폭력대책위원회)이 참여하고 토론회의 진행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부유 의원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김부유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세종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상호존중 및 배려의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확립'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mailto:guesttt@cctoday.co.kr)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첨단기



홈 > 뉴스 > 충남 > 세종

##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 개최

세종시의회, 지난 7일 시의원·학부모·청소년전문가 등 200여명 참석

2013년 06월 10일 (월)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mailto:lin13031303@dailycc.net)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의원)가 주관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폭력예방과 존중 및 배려의 청소년문화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가 지난 7일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연구원 다목적 홀에서 시의원, 학부모·청소년전문가·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물질만능 향락주의적 사회분위기 속에 On-Off Line상 유해환경 범람함에 따라, 청소년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미흡하고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추진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세종시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전국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소년 폭력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부유 의원이 진행을 맡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유 교수(경기대학교 교직학과, 교육학박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회 좌장으로 류관옥 센터장(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토론자로 김준환 교수(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심은석 서장(세종경찰서), 이길주 장학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학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미 대책위원(서울시교육청 폭력대책위원회)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김부유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세종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상호존중 및 배려의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확립’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규모기자lin13031303@dailycc.net

© 충청신문(<http://www.dailycc.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충남 노인보호 전문기관” 견학 | 2013년 09월 10일 19시 52분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 회원과 관계공무원 등 12명은 세종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여 대안을 시정에 제시하기 위해 10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견학했다.



이번에 견학한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에 설립하여 충청남도 시·군 내 노인 학대 관련 상담과 홍보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부설로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시보호와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쉼터(푸른쉼터)가 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노인학대의 유형, 원인 및 사례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보건복지 정책연구회 대표 김부유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학대는 2010년 111건에 그쳤으나 2011년 144건, 2012년 173건, 올해 7월까지 311건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세종시에도 전문기관과 보호 시설을 설립하여 노인학대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대인 줄 모르고 저지르거나 학대받는 노인이 자식에게 피해 갈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충남 노인보호 전문기관 견학

2013. 09.10(화) 16:00

가+ 가-



[세종/ct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 회원과 관계공무원 등 12명은 세종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 대안을 시정에 제시하기 위해 10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견학했다.

이번에 견학한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에 설립해 충청남도 시·군 내 노인 학대 관련 상담과 홍보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부설로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시보호와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쉼터(푸른쉼터)가 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정책연구회 대표 김부유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학대는 2010년 111건에 그쳤으나 2011년 144건, 2012년 173건, 올해 7월까지 311건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세종시에도 전문기관과 보호시설을 설립하여 노인학대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대인 줄 모르고 저지르거나 학대받는 노인이 자식에게 피해 갈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종일 기자 jil3679@daum.net

[정종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CTN 홈페이지(<http://www.ctnew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ctn@ctnews.kr](mailto:ctn@ctnews.kr)



##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해법 모색

세종시의회, 토론회 가져

전병찬

[세종=충청일보 전병찬 기자]세종시의회가 5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세종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현석 KT&G 상상마당 논산 운영자 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청소년수련관 모델'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하고, 지정토론에서는 류권옥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류다예 세종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박진만 테마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부유 세종시의회 의원, 강희동 세종시 사회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부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완비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놀이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시의회가 5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편집부



## 세종에도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해..

세종시의회 김부유의원, 건립모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3년 11월 05일 (화) 13:26:51

이병기 기자 [lbkblue@hanmail.net](mailto:lbkblue@hanmail.net)



5일 세종시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가 세종시의회주최로 개최됐다.

[세종방송 = 이병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한준)가 5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세종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의원) 김부유의원 "많은 위정자들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성인정책에 비해)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지적하고 "번암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처럼 비 전문가들에 의해 행정적으로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의 좋은 내용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세종시의회 김부유 의원

유한준 의장  
은 축사에서

"청소년은 세종과 우리 나라의 미래다. 우리 세종시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황미영 원장

토론회에 앞 토론회를 주최한 세종시의회 유한준의장

서 진행된 기

조강연에서 충북청소년지원센터 황미영 원장은 "세종시에는 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이 특히 많다"며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최고이나 불균형적인 발달과 함께 행복감 저하는 캄보디아와 유사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현석 KT&G 상상마당 논산 운영자 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청소년수련관 모델'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에서는 류권옥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류다예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박진만 테마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부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강희동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5일 열린 '세종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에서는 수련관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전국 753개 청소년수련시설중에 세종시에는 현재 1곳만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 모습.

토론회를 주관한 김부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완비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놀이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유환준의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위원장 그리고 토론회를 주관한 김부유의원과 박영송의원이 참석했다.



'세종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토론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는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422개의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11,886





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모두 753개지만 세종시에는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 세종방송(<http://www.sejong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인쇄하기

 창닫기

☞ 홈 > 뉴스 > 정치·경제

## 김부유, "청소년놀이문화정착에기여"

세종시의회,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 개최

2013년 11월 05일 (화) 20:46:29

송순선 기자 ☞ sun0910@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5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세종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현석 KT&G 상상마당 논산 운영자 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청소년수련관 모델'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류권옥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류다예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박진만 테마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부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강희동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



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부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완비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놀이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적합한 지역 중심의 청소년수련시설 모델’이라는 주제로 황미영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 특급뉴스(<http://www.express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품인쇄하기

☒ 창닫기

홈 > 뉴스 > 지역뉴스 > 세종

## 세종시의회,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 개최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놀이문화 정착에 기여”

2013년 11월 05일 (화) 21:39:01

임현선 기자 ☞ [sunright@citytimes.co.kr](mailto:sunright@citytimes.co.kr)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가 5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세종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현석 KT&G 상상마당 논산 운영자 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청소년수련관 모델’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에서는 류권욱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류다예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박진만 테마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부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강희동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부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완비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놀이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적합한 지역 중심의 청소년수련시설 모델’이라는 주제로 황미영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 씨티타임즈(<http://www.city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인쇄하기 ☒ 찜하기



## 세종시의회,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 거행

건강한 여가생활과 놀이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2013년 11월 05일 (화) 20:51:25

이원구 기자 ☞ ebaekje1@hanmail.net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가 5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세종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모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현석 KT&G 상상마당 논산 운영자 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청소년수련관 모델’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에서는 류권옥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류다예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박진만 테마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부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강희동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부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완비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놀이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적합한 지역 중심의 청소년수련시설 모델’이라는 주제로 황미영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 백제뉴스(<http://www.ebaekj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홈 > 뉴스 > 정치/행정 > 세종시정

## 29일 세종 청소년정책 토론회

종합사회복지관 어울림홀

2013년 11월 29일 (금)

황근하 기자 ✉ [guesttt@cctoday.co.kr](mailto:guesttt@cctoday.co.kr)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청소년정책 과제 발굴과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한 2013년 청소년정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토론회가 29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 4층 어울림홀에서 개최된다.

청소년정책토론회는 청소년이 전하는 청소년정책 제언을 시작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박사의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설명과 백석대학교 박철웅 교수의 주제발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의원 등 청소년전문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 변화 등 청소년관련 사회·경제적 환경과 기능변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제언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정책 중점과제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mailto:guesttt@cctoday.co.kr)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홈 > 뉴스 > 정치

##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청소년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방안 모색

2013년 12월 22일 (일) 06:24:31

구운서 기자 ☞ koows11@hanmail.net



토론회를 주관한 김부유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있다.

〔충청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 연구모임회는 20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류권옥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서 류다예 세종시청소년참여위원회 회원의 '청소년이 바라보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 김종림 공주여고 보건교사의 '청소년 정신건강', 이순민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의 '청소년 보호차원의 미디어 중독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부유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중독된 청소년들을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상담·치료의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방법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 연구모임 토론회

- 청소년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방안 모색 -

2013. 12.22(일) 19:07

가+ 가-



[세종/ctn]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 연구모임에서는 지난20일 오후2시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청취와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해 향후 세종시의 발전을 담당할 미래 인재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인터넷 중독예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류권욱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서 류다예 세종시청소년참여위원회 회원의'청소년이 바라보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해결 방안', 김종림 공주여고 보건교사의'청소년 정신건강', 이순민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의'청소년 보호차원의 미디어 중독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부유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중독된 청소년들을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상담·치료의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방법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청소년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방안 모색"

세종시 보건복지정책 연구모임 토론회

전병찬

[세종=충청일보 전병찬기자]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 연구모임은 지난 20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청취와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해 향후 세종시의 발전을 담당할 미래 인재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인터넷 중독예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류권옥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 세종시의회 보건복지정책 연구모임이 지난 20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편집부

